

성경 연구 : 출애굽기 4 : 24-26

## 피 신랑의 할례 피

-첫날 밤에 흘릴 신부의 피를 대신하는 신랑의 피를 상징함-

황 창 기 (부교수)

### 1. 들어가는 말

미국에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가 그 자리에서 포경수술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필자도 둘째, 세째 그리고 네째 아들을 미국에서 얻었는데 모두 출생 즉시 포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관습은 성경에 나오는 할례에서 나왔다. 그러하지만 오늘날 병원에서 갓난 사내 아이에게 행하는 그 관행은 성경의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성경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례는 원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징표이다(창 17 장). 그런데 그 언약은 왜 남자에게만 하는가? 왜 사내 아이의 양피를 베어 피를 흘리게 하는가? 본문에서 말하는 피의 남편이란 무슨 뜻인가? 할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고에서는 할례에 대한 모든 교훈을 다루려 하지 않는다. 다만 출 4 : 24-26을 석의 함으로 본문에 나오는 할례가 가지는 계시 역사적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성경해석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 또는 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구원역사적 전진과 변혁을 고려하는 신학적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 본문은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와 주석마다 그 해석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필자가 성경학도로서 난해한 본문도 바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한다는 충정으로 이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고는 James B. Jordan이 그의 책 부록에서(참조; *The Law of the Covenant* 1984 : 243-260) 이 본문이 지금까지 주석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예비적 유월절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것에 비추어 필자가 오래 묵상하고 연구 발전시켜 본 것이다.

### 2. 문체적 고찰

#### 2. 1 본문의 맥락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출생하여 바로의 궁중에서 성장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즉 그가 호렙산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다.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학대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 할 말도 하나님이 일러 주시고 또 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 줄 것인지도 알려 주신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 할 것을 4장에서 걱정하였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을 모세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백성들이 그를 믿을 것을 말씀하셨다. 즉 지팡이가 뱀으로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는 것과 모세의 손이 자기 품 안에서 문둥병이 발병하였다가 다시 여상한 손이 되는 이적이다. 모세는 이번에는 자기가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변명하자, 하나님께서는 입과 귀를 지으신 분이요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까지 하신다. 그래도 모세는 갈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우긴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그의 형 아론을 같이 가도록 하신다. 모세는 드디어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여기까지가 4장 18절 까지의 내용이다.

그 다음 19절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고, 20절에서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가 받은 이적을 모두 바로 왕 앞에서 행하여도 바로 왕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장자인 이스라엘을 놓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로가 거절하니 그의 장자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우리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소명을 수행하러 가는 모세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 27절에서 31절 사이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형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 하나님의 부탁과 이적을 이야기 한다. 이제 두 형제가 같이 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야기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도 행하여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제 5장부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곧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나아가 전한다. 그래서 열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게 된다. 특히 열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모조리 죽는 무서운 사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즉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 감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첫 유월절의 시행과 그 규례에 대하여 12장과 13장에 기록하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전개된다.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꼭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즉 우리 본문(4: 24-26)은 앞의 19절에서 23절까지의 사건(들)과는 같은 사건이나 다른 국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러가는 모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을 잊지않는 것이 본문을 바로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 2. 2 본문의 올바른 번역

본문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 말로 정확하게 옮기지 못한 곳이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그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 1) 문제점

24절-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25절-십보라가 차들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너는)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절-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들)를 인함이더라.

① “모세”라는 말(24, 25, 26절)이 원문에 없다. 즉 원문에는 ‘그’라는 3인칭 단수 인칭어미로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모세”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독어, 화란어 번역은 원문 그대로 잘 옮기고 있다.

② 25절에서 “발 앞”은 ‘다리’로 번역할 수도 있다(BDB, 1979: 919). 사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다리’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다(삼상 17: 6).

③ 또 “던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닿게 한다’는 번역이 바른데(BDB, 1979: 619), 영어 성경(NIV와 NASB의 여백)과 화란어 성경에도 ‘닿게 한다’를 지지하고 있다. 즉 25절의 밑줄 친 부분은 “그의 다리에 닿게 하며”로 번역되어야 한다.

④ 26절의 “피 남편”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NASB와 NIV)대로 ‘피 신랑’(bridegroom of blood)으로 번역하여야 한다(BDB, 1979: 368). 남편이란 말은 신혼 기간이 지난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도 적용되나, 신랑이란 말에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라는 어감이 있다.

⑤ 그리고 이 귀절에서 “당신”이란 표현은 영어에서 쓰이는 어법과 같이 ‘너는’이라고 고쳐써도 무방하다.

### 2) 모세보다는 게르솜

결국 우리 개역 성경 본문의 모세(24, 25, 26절)라는 말은 “그”라고 바꾸어야 한다면,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누구일까? 그 가능성은 모세와 그의 두 아들, 이 세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서 “그”는 모세로 지금까지 이해하여 왔다. 특히 십보라가 “당신은 내게 피 남편이로다”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것이 더욱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라는 말의 선행사는 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아들이라면 모세의 맏아들 게르솜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다. 그 이유는 문맥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장자”(이스라엘)를 바로가 놓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한 이유로, 바로에게 “내 아들 네 장자”(애굽인들)를 죽이겠다고 하신 다음에 24절 내용이 이어진다. 따라서 24절에서는 모세보다도 그 아들이 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겠다(출애굽기 주석 참조; A. A. Cole <1973>, B. S. Childs <1974>, G. Bush <1976>). 그리고 그렇게 볼 때 25절에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라는 표현과도 부드럽게 연결된다. 그리고 신랑이라는 말은 모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광야에서 결혼 후 40년을 지나서 80세 가량 된 모세이고 보면, 신랑이란 말은 그에게 어울리기 보다는 그의 아들에게 더 어울린다고 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의 선행사는 모세인지 그 아들인지 애매한 점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로 알고 본문을 접근하여 왔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이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는 바이다.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신학이 본문 해석의 근본은 될 수 없으나, 그 보조 역할은 하고 있다는 평소의 소신을 증명하여 보이고자 하는 내심도 있음을 사심없이 밝힌다. 필자는 본문 석의와 신학은 해석학적 원(hermeneutical circle)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고 보니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신랑이라고 한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이 글의 핵심 분야로서, 이제 본문에서 자세히 다룸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제 위와 같이 올바르게 번역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자.

### 2. 3 본문의 분석정리

#### 1) 모세의 장자에게 임한 사망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하셨다. 모세 가족이 지금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자 게르숨을 죽이려고 위협하시었다. 그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창 18 : 14)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자가 사망의 위협중에 있다는 말은 모세의 가정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곧 하나님의 장자(22절)인 것같이 모세의 장자는 모세의 가정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Jordan, 1984 : 39-40, 55, 82 ff, 209, 211 ff, 243 ff)

#### 2) 모세의 장자에게 행한 할례(25절)

황급한 상황을 만난 처지에서 모세보다도 십보라가 재빠른 행동을 한다. 차들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이는 곧 난지 팔일 만에 시행하였어야 할 할례이다. 게르숨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광야에서 이방인과 함께 생활한 가운데서 이 의식을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여 그 양피를 아들의 다리에 닿게한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피가 다리에 묻은 것이다. 왜냐하면 “닿게하다”는 동사는 세계 닿게하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이다(이 동사의 명사형의 뜻 참조, BDB, 1979 : 619).

그리고 십보라는 그 아들이 자기에게 피의 신랑이라고 외쳤다. 아들을 보고 피의 신랑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인함이었다고 한다. 아들을 피의 신랑이라고 부르도록 한 그 할례의 의미가 심오한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 3) 모세의 장자에게 임한 구원(26절)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게르숨을 그냥 홀로 있도록 하셨다. 즉 사망의 위협이 물러가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게르숨 혼자서 해방이 아니라 모세 가정 전체의 구원(출)이다. 어쨌든 모세의 가정은 게르숨이 대신 흘린 피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중시하여야 한다.

## 3. 구원역사적 고찰

### 3. 1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

본문이 유별나게 난해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여보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줄 믿는다.

- ① 왜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 ② 왜 여호와께서 하필이면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 하셨는가?
- ③ 그런데 남편된 모세보다도 아내인 십보라가 왜 나서는가?
- ④ 여기서 십보라는 하필이면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는가?
- ⑤ 또 양피를 베어 아들의 다리에 닿게(피가 묻게) 하는가?

그런데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보고 “너는 참으로 내게 피 신랑이로다”고 말한 점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우리 한글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하였지만(25절) 이 말은 “너”라고 고쳐야 된다고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 ⑥ 피 신랑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 ⑦ 어째서 자기 아들이 자기(십보라)에게 피 신랑이 되는가?
- ⑧ 십보라가 이 말을 하니가 여호와께서 그(장자)를 놓아 살게 하셨는데(26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⑨ 어머니요 아내인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피의 신랑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라고 하였는데(26절), 도대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런 관련을 짓는 이 할례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본문이 처한 계시 역사상의 위치가 어떤지 살펴보자

### 3. 2 본문의 구원역사상의 위치

먼저 명심하여야 할 것은 우리 본문의 내용도 28절과 30절에 관한 “이적들”과 문맥상 어떤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애굽에서 행할 이 표적들에는 10재앙이 물론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이적”(21절)을 시행하려 가는 도중에, 우리 본문의 사건 즉 할례와 이로 인한 죽음을 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이적이다. 따라서 우리 본문의 이 사건도 이적으로서 28절에 말하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점은 성경의 이적은 표적(miraculous signs, NIV)으로서 그 계시하는 내용(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 본문의 사건이 곧 표적이라 한다면 구속 역사의 전진에 맞추어 볼 때 이것은 무엇을 계시하는가?

그리고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중에 일어났다(20절)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여호와와 장자인 이스라엘을 놓아주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한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메세지로 가지고 가는 모세 가정에 본문의 할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은 유월절의 규례를 새로 정한대로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대 사역을 수행하려고 있는 모세의 가족에게 그 사역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다(H. Cosmala, *Vetus Tes*

tamentum 12 (1962) : 14-28). 즉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 안에는 구원이요, 그 집 밖에는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난 것들이 죽는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러가는 모세의 가족이 공포의 사망에 처하여 있다가 할례의 피로 극적인 구출을 받는 사건이다(참조 ; T. E. Fretheim, *Exodus : Interpretation*, 1990 : 78-81).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양피의 피와 유월절 어린양의 피,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럼 그 관계는 무엇인가?

### 3. 3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본문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면서 단수로 표시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내 아들 내 장자란 말에는 단수이면서 “집단적 의미”(corporate sense)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이미 다른 글에서 말하였듯이 (그 말씀, 1992년 10월호 : 77쪽), 하나님에게 뽑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머리(모세)와 몸(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가진다. 즉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그 당시 또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할 것을 당하는 예표(모형)적인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세가 나일 강에 던져졌는데(2 : 3),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아이들도 나일 강에 던져졌다(1 : 22). 모세를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는데(2 : 6),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의 사내아이들을 산파들이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2 : 24-25). 모세가 상자 속에서 우는 것은 편하지 못하여 운 것으로(2 : 6) 그가 강물에서 고난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물에서 구원을 얻었다. 즉 모세가 물에서 구출(exodus)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 출애굽(exodus)한 것을 내다본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워줌(구출 : exodus)으로 애굽인 바로의 공주에게 삶을 얻었는데(2 : 9),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에 은금 패물과 의복 등 많은 물품을 받아 나왔다(12 : 35-36).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추었는데(2 : 12),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고(12 : 29-30), 애굽 군사가 홍해에서 떼 죽음을 당하였다(15 : 27-28). 모세가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잘못된 자에게 가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니 그가 모세를 거역한 것같이(2 : 13-14),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인도자 모세를 거역하였다. 모세가 바로의 낫을 피해 도망한 것같이(2 : 15),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에게 쫓겨났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으며 40년간 생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다. 이런 관계에 있는 모세 가정에 일어난 본문의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과 무관하지 않다.

### 3. 4 모세 가정의 예비적 유월절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본문의 사건은 12장에서 일어날 유월절을 모세의 가정에서 먼저 체험하는 장면이라 할 만 하다. 즉 예비적 유월절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상하게도 이 사건과 유월절의 내용까지도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그 피를 다리에 묻히는 행위는, 곧 유월절에 양의 피를 애굽에서 양을 구워먹을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는 사람의 다리가 기둥이나 문설주에 비유되기도 하기(아가서 5 : 15) 때 문이다(참조, M. G. Kline, *Images of the Spirit*, 1980). 또 사람의 몸이 집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점이(전도서 12 : 3-4, 고전 6 : 19, 요 2 : 21) 이 사실을 뒷받침 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모세의 장자(게르솜)를 죽이려는 행위는 애굽의 모든 처음난 장자를 죽이는 일과 서로 통한다. 여기서 피를 보고 놓아준 것은 유월절에도 주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실과 같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모세가정에 일어난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모형(예표)으로서 장차 모세와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원형인 유월절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D. Daube, *The Exodus Pattern in the Bible*, p. 13 ff).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파악한다면 십보라가 게르솜에게 행한 할례로 모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의미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시행되기도 전에 왜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 하셨는가? 그래서 십보라의 재치있고 기민한 행동으로 결국 화를 면하게 되었는가?

### 3. 5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려한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징벌을 하되 다른 여러가지 수단 중에서 왜 사망으로 응징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려한 이유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애굽의 피 값이다. 피는 땅을 더럽히어 반드시 복수를 불러 일으킨다(민 35 : 32-34). 애굽의 나일강에서 살해된 히브리 사내아이들의 피 값은 하나님의 복수를 불러온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온 사망은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인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들을 위협하였다. 오직 도피성에 피한 자들만 안전하였다. 유월절 밤에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피를 문 인방과 좌우편의 설주에 뿌림으로 자기 집을 도피성으로 만든 셈이다(물론 도피성이 제도화된 것은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 장자를 대신한 이후에 6곳이 지정됨으로 확정됨).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애굽에 행할 “이적”(10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28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적이었다. 그래서 표적이 계시하는 내용이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 사건이 예표(모형)이고 유월절은 원형인 관계를 계시 역사선상에서 이루고 있다는 점도 이미 말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피를 흘려 생명을 해한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복수하신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망의 심판이 하필이면 모세의 가정에 와야 하는가?

### 3. 6 모세의 장자가 사망에 처한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유월절에 사용하실 기본원리를 가르치시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것 같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침을 더욱 정확하게 잘 전달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본문의 사건은 모세 가정에 예비적 유월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모세는 앞으로 애굽에 있는 중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를 선포 실행하여 옮기는 막대한 책무를 띠고 있었다. 모세는 이 일을 어떻게 시행하였던가? 특히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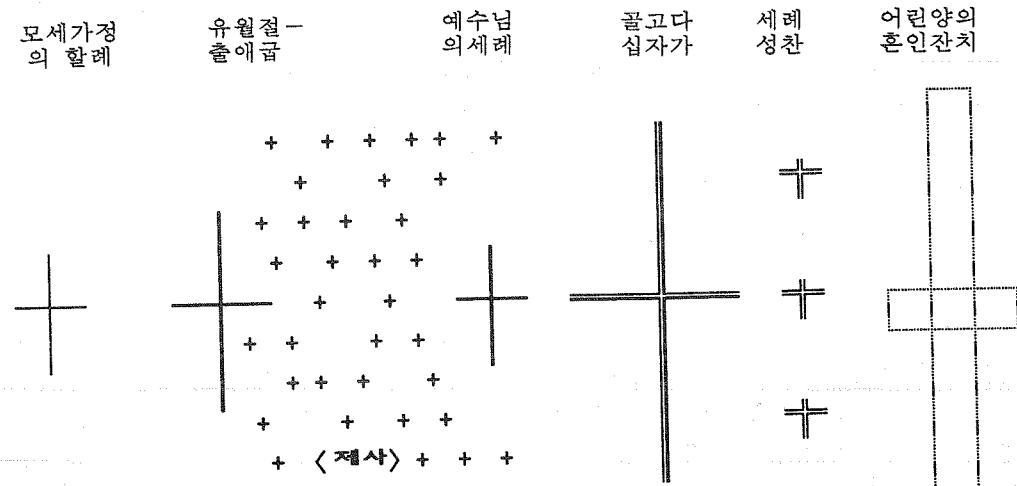
한 것이며……”라고 하였다. 이 문장의 동사 “정하다”는 “만들다”라는 뜻으로 능동태이다. 모세가 의지를 가지고 그 임무 수행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생각하여 보라.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중대한 잡족까지(출 12 : 37, 38) 약 200만은 되었으리라고 추측 하기도 한다. 그 정도의 사람 수라면 지금 대전 시민의 수자만큼이나 된다. 요즘과 같은 정보시대에도 모든 마스크를 다 동원하여 홍보한다고 해도 국가가 어떤 제도를 그 많은 시민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 제도를 모세가 지시하고 가르쳐서 심판 때에 다치지 않게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모세가 그 일을 먼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확한 계시 전달 및 교육적 목적 아래 모세의 장자가 사망의 위협을 받은 일면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간에 모세의 가정에 다가온 이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십보라가 그 장남에게 행한 할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에 당한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면한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출애굽한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 할례의 의미를 파악하는 지름 길일 것이다.

#### 4. 유월절 - 출애굽의 의미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에 애굽에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무서운 사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구출 해방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고, 나아가서 세례와 성찬식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최종적 성취를 내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할례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앞에서 밝혔는데, 우리 본문은 이 할례 때문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피의 신랑”이라고 하여 할례와 혼인이 관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할례가 내다보는 출애굽 사건의 구원사적인 의의를 먼저 살펴보자.

#### 4. 1 유월절 - 출애굽 : 구속 도리의 총체적 의미

구약(Old Covenant)에서 유월절-출애굽은 구속모형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한 죄 값을 갚으시는 보수자이심을 이 유월절-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피 값을 갚으시는 사망의 진노 가운데서도 어린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도피성이 된 집 안에 있으면,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구원은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면도 이 사건이 보여준다. 그리고 어린양(염소, 황소, 비둘기 등 짐승)이 피를 흘려 죽고, 그 대신 죄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 사건에서 대속적 구원 원리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에 다 포함되어 있다.

#### 4. 2 유월절 - 출애굽 : 애굽의 사망과 이스라엘의 출생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것이요,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면서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날이다. 우리는 앞에서 전도서 12장 등에서 집과 사람의 몸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아침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묻은 문을 나오는 것은 아기가 산모의 피묻은 아기집을 나오는 것과 비슷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바로의 장자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장자(출 4 : 22, 23 ; 렘 31 : 9)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피묻은 문을 통해서 나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사망 또는 생명(출생)을 이 문과 연결시키고 있다.

창 18 : 10-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 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門에서 들었더라. <이삭의 출생 배경 기사에서>

삼상 1 : 9-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의 전 門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사무엘의 출생 배경 기사 중에서>

삿 11 : 31-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門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다의 딸의 죽음 배경 기사에서>

삿 19 : 27, 28-그의 주인이 일찌기 일어나 집 門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門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門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느니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레위인의 첩의 죽음 배경 기사에서>

왕상 14 : 17-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門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 지라. <아비야의 죽음 기사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0:1-9절에서 예수님께서 문이시라는 말씀을 이리한 구약적인 배경과 함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특히 9절에서 사망과 생명을 문이신 예수님과 한꺼번에 관련시키는 점도 분명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門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門이라……내가 門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 4. 3 유월절-출애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출애굽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혼인 사건이란 의미도 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상징적 표현(Biblical symbolism)이다. 이 사실은 에스겔 16장과 호세아 1장-3장에서 볼 수 있다.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였더니(8절), 음부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따르며, 갈대아를 의존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 행위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방자한 음부의 행위”(30절)라고 꾸짖으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아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32절)라고 낙인을 찍으신다.

호세아 1장-3장도 배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혼인 상태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하나님을 “본 남편”(2:7)이라 하고, “내 남편”(2:16)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혹 어떤 사람은 출애굽 사건 기록에는 “혼인”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할지 모르겠으나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와 같이 뚜렷이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정확한 단어는 없으나 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은 있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신학적 전문 용어 중 “삼위일체”가 그 좋은 실례이다. 성경 아무데도 삼위일체란 말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상과 같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가지 구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제를 위하여서는 특히 혼인의 의미가 중요하다. 즉 할례가 계시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내다 보는데, 이 유월절-출애굽 사건은 혼인의 의미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 할례는 혼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5. 할례가 지니는 혼인의 의미

다시 말하지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할례가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출애굽의 의의는 할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혼인과 연관되는 부분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본문에서 할례로 인하여 십보라가 자기의 장남을 “피의 신랑”이라고 말하였다(26절).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된 점을 중시하여야 하겠다. 첫째는, 다른 말보다도 “신랑”이라는 말에서 이 할례가 혼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장남이 피를 흘림으로 모세 가정 전체가 사망의 위협에서 구출되는 대속적 의미이다.

#### 5. 1 할례의 (양피에서 흐르는) 피의 가치

이제 우리는 이 글의 핵심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서론의 질문에서도 다루었지만 왜 사내아이에게만 할례를 행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육체의 여러 부분 중 하필이면 양피를 잘라서, 그 곳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가? 그것도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창 9:6)고 말씀하시고 또 피는 피로 갚으시겠다고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왜 양피를 베어 피를 흘리는 할례를 제도화 하시었겠는가 (창 17장)? 우리는 여기서 피가 곧 생명이며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가 죄를 속하는 기능도 함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창 9:5; 레 17:11 등 참조). 생명이 있는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피흘리는 사내아이는 생명을 내놓고 죽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일부러 흘리게 하는 그 사내 아이의 피(할례의 피)에 죄를 속하는 기능도 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피를 흘리는 할례가 혼인을 나타내는 면(앞에서 설명한 대로)과, 자기가 낳은 사내(아이)를 신랑이라 하는 이유를 할례 때문이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는 점과, 또 그 신랑의 양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한 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럼 이 세 가지와 연관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피가 양피에서 나오는 점과 그것도 신랑의 양피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바로 신혼 부부(첫날밤)의 피와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 5. 2 할례의 피는 신혼의 피를 상징함

우리는 신혼 부부가 결혼 첫날 밤에 흘리는 피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교회)은 상징적인 결혼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가 동정녀이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은 고린도 후서 11:2-3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이)와가 뱀에게 미혹되어 그가 시키는대로 하였을 때 영적 처녀성(순결성)을 잃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낳게 되었다(창 3:15). 즉 신부가 창녀 노릇을 한 셈이다.

그런데 그런 음행한 신부는 신혼 첫날에 남편에게 피를 흘릴 수 없다. 처녀성을 벌써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명기 22:13-21에 의하면 그러한 여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여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을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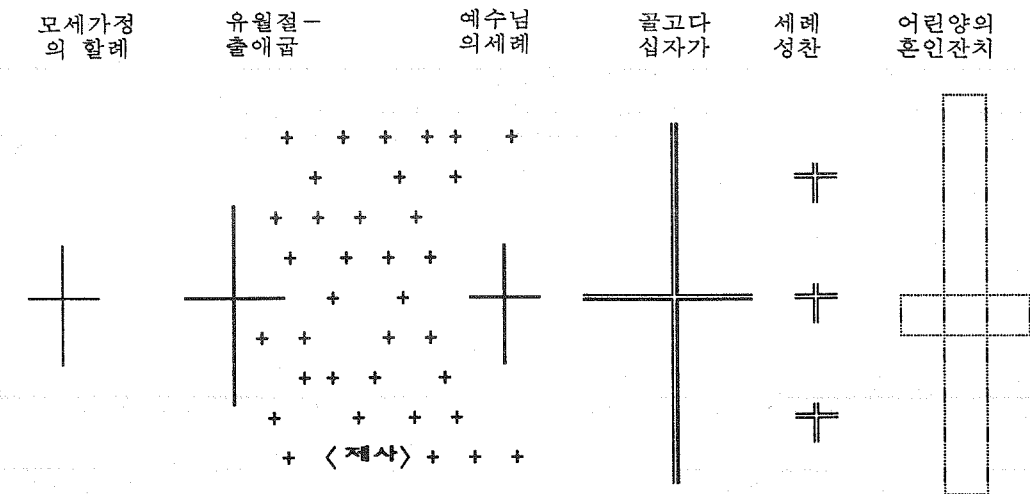
한 것이며……”라고 하였다. 이 문장의 동사 “정하다”는 “만들다”라는 뜻으로 능동태이다. 모세가 의지를 가지고 그 임무 수행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생각하여 보라.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증대한 잡족까지(출 12:37, 38) 약 200만은 되었으리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 정도의 사람 수라면 지금 대전 시민의 수자만큼이나 된다. 요즈음과 같은 정보시대에도 모든 매스컴을 다 동원하여 홍보한다고 해도 국가가 어떤 제도를 그 많은 시민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 제도를 모세가 지시하고 가르쳐서 심판 때에 다치지 않게 하기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증차대한 임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모세가 그 일을 먼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확한 계시 전달 및 교육적 목적 아래 모세의 장자가 사망의 위협을 받은 일면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지간에 모세의 가정에 다가온 이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십보라가 그 장남에게 행한 할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에 당한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면한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출애굽한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 할례의 의미를 파악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4. 유월절-출애굽의 의미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에 애굽에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무서운 사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구출 해방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고, 나아가서 세례와 성찬식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최종적 성취를 내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할례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앞에서 밝혔는데, 우리 본문은 이 할례 때문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피의 신랑”이라고 하여 할례와 혼인이 관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할례가 내다보는 출애굽 사건의 구원사적인 의의를 먼저 살펴보자.

#### 4. 1 유월절-출애굽 : 구속 도리의 총체적 의미

구약(Old Covenant)에서 유월절-출애굽은 구속모형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한 죄 값을 갚으시는 보수자이심을 이 유월절-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피 값을 갚으시는 사망의 진노 가운데서도 어린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도피성이 된 집 안에 있으면,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구원은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면도 이 사건이 보여준다. 그리고 어린양(염소, 황소, 비둘기 등 짐승)이 피를 흘려 죽고, 그 대신 죄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 사건에서 대속적 구원 원리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에 다 포함되어 있다.

#### 4. 2 유월절-출애굽 : 애굽의 사망과 이스라엘의 출생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것이요,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면서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날이다. 우리는 앞에서 전도서 12장 등에서 집과 사람의 몸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아침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묻은 문을 나오는 것은 아기가 산모의 피묻은 아기집을 나오는 것과 비슷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바로의 장자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장자(출 4:22, 23; 렘 31:9)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피묻은 문을 통해서 나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사망 또는 생명(출생)을 이 문과 연결시키고 있다.

창 18:10-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 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門에서 들었더라. <이삭의 출생 배경 기사에서>

삼상 1:9-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門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사무엘의 출생 배경 기사 중에서>

삿 11:31-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門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압다의 딸의 죽음 배경 기사에서>

삿 19:27, 28-그의 주인이 일찌기 일어나 집 門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門에 엮드러지고 그 두 손이 門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레위인의 첩의 죽음 배경 기사에서>

왕상 14:17-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門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 지라. <아비야의 죽음 기사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0:1-9절에서 예수님께서 문이시라는 말씀을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과 함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특히 9절에서 사망과 생명을 문이신 예수님과 한꺼번에 관련시키는 점도 분명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門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門이라……내가 門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 4. 3 유월절-출애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출애굽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혼인 사건이란 의미도 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상징적 표현(Biblical symbolism)이다. 이 사실은 에스겔 16장과 호세아 1장-3장에서 볼 수 있다.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였더니(8절), 음부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따르며, 갈대아를 의존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 행위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방자한 음부의 행위”(30절)라고 꾸짖으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32절)라고 낙인을 찍으신다.

호세아 1장-3장도 배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혼인 상태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하나님을 “본 남편”(2:7)이라 하고, “내 남편”(2:16)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혹 어떤 사람은 출애굽 사건 기록에는 “혼인”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할지 모르겠으나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와 같이 뚜렷이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정확한 단어는 없으나 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은 있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신학적 전문 용어 중 “삼위일체”가 그 좋은 실례이다. 성경 아무데도 삼위일체란 말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상과 같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가지 구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제를 위하여서는 특히 혼인의 의미가 중요하다. 즉 할례가 계시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내다 보는데, 이 유월절-출애굽 사건은 혼인의 의미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 할례는 혼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5. 할례가 지니는 혼인의 의미

다시 말하지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할례가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출애굽의 의의는 할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혼인과 연관되는 부분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본문에서 할례로 인하여 십보라가 자기의 장남을 “피의 신랑”이라고 말하였다(26절).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된 점을 중시하여야 하겠다. 첫째는, 다른 말보다도 “신랑”이라는 말에서 이 할례가 혼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장남이 피를 흘림으로 모세 가정 전체가 사망의 위협에서 구출되는 대속적 의미이다.

#### 5. 1 할례의 (양피에서 흐르는) 피의 가치

이제 우리는 이 글의 핵심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 서론의 질문에서도 다루었지만 왜 사내아이에게만 할례를 행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육체의 여러 부분 중 하필이면 양피를 잘라서, 그 곳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가? 그것도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창 9:6)고 말씀하시고 또 피는 피로 갚으시겠다고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왜 양피를 베어 피를 흘리는 할례를 제도화 하시었겠는가 (창 17장)? 우리는 여기서 피가 곧 생명이며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가 죄를 속하는 기능도 함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창 9:5; 레 17:11 등 참조). 생명이 있는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피흘리는 사내아이는 생명을 내놓고 죽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일부러 흘리게 하는 그 사내 아이의 피(할례의 피)에 죄를 속하는 기능도 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피를 흘리는 할례가 혼인을 나타내는 면(앞에서 설명한 대로)과, 자기가 낳은 사내(아이)를 신랑이라 하는 이유를 할례 때문이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는 점과, 또 그 신랑의 양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한 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럼 이 세 가지와 연관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피가 양피에서 나오는 점과 그것도 신랑의 양피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바로 신혼 부부(첫날밤)의 피와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 5. 2 할례의 피는 신혼의 피를 상징함

우리는 신혼 부부가 결혼 첫날 밤에 흘리는 피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교회)은 상징적인 결혼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가 동정녀이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은 고린도 후서 11:2-3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이)와가 뱀에게 미혹되어 그가 시키는대로 하였을 때 영적 처녀성(순결성)을 잃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낳게 되었다(창 3:15). 즉 신부가 창녀 노릇을 한 셈이다.

그런데 그런 음행한 신부는 신혼 첫날에 남편에게 피를 흘릴 수 없다. 처녀성을 벌써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명기 22:13-21에 의하면 그러한 여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여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을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못을 그 성을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을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을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자는 그의 처녀의 표적을 남편에게 보여야 했다. 이 일에 대한 신랑의 시비가 있으면 그 처녀 아버지가 그 피묻은 자리옷을 성읍 문 장로들 앞에 펼치어 그 처녀가 음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그 여자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여기서도 門과 사람의 생사가 관련이 있는 점은 두고라도, 처녀의 표적인 피를 흘릴 수 없으므로 죽음을 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처녀를 사랑하여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 여자의 옛 남자가 나타나 그 혼인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사형에 처하게 함으로 못먹는 밥에 재 뿌리기 식으로 훼방한다면,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 여자가 사형을 당할 처지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대답은 신랑이 그 신부를 대신하는 수 밖에 없다. 즉 그 신부의 자리옷에다 신랑 자신의 피를 묻혀 자기 아내된 여인의 생명을 구해주는 길 밖에 없다. 또 그것을 위하여 신랑이 다른 곳에서 흐르는 피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결합하는 부분의 피로 대신하여 자리 옷에 마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처방이라 할 만하다. 그 신부는 자기 신랑의 상처를 볼 때마다 자기는 죽어야 할 죄인인 반면에, 신랑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근거로 어떤 원리를 세워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의 침묵을 근거로한 해석이라고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율법 자체가 실제 있을 법한 상황을 가정하고 전개할 뿐만 아니라(14절), 그 처리 방식이 우리 본문의 할례 실시 정황(사망의 위협, 양피의 피, 신랑 등)과 또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할례의 의도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1> 여자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므로, 그것이 사실 일 때는 그 여자가 결국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경우에(13, 14절), <2>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표를 얻어내되 (15절), <3> 처녀의 아버지가 대신 변호할 뿐만 아니라(16절), 또 <4> 다른 것보다도 (자리)옷을 장로들 앞에 증거물로 내 놓아야(17절) 그 여자는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다.

즉 할례의 피는 신랑의 양피에서 흘리는 피로서, 신부가 흘려야 할 혼인의 피를 대신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 5. 3 할례의 피는 대속의 피를 상징함

이제 우리는 왜 할례가 남자 아이에게만 행하여지며, 그것도 다른 부위가 아닌 양피를 베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할례의 피는 음행한 신부가 혼인한 남편을 처음 만나면서도 피를 흘릴 수 없으므로 처녀의 표적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망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그 사랑하는 신

랑이 아내를 대신하여 흘리는 피를 상징한다. 즉 할례의 피는 율법이 규정한 아내의 처녀성의 표적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랑이 자기 양피에서 흘리는 피 즉 혼인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할례의 피는 역시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이 피를 흘려서 아내의 생명을 구하므로 이것은 곧 대속의 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추측 차원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그 진리를 볼 수 있다.

먼저 장자를 죽이고자 한 것 자체가 대표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즉 모세 가정에 사망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장자인 게르솜에게 임한 것(24절)을 위에서 이미 말하였다. 그 가정에 장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 가정 전체가 진노를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로를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가정들을 치기 위하여 그 장자들을 죽이시었다.

그리고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시행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새로 고친 번역으로 “너는 참으로 내게 피의 신랑이로다”라고 한 점에서도 대속적인 의미가 잘 나타난다. 얼핏 보기에 자기 아들을 신랑이라고 한 점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할례로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에게 한 말이라는 점이다. 이 아들의 할례가 모세 가정 전체를 구원한 사건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아들이 흘린 피로 십보라 자신이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십보라는 “내게”라는 말을 쓴 것이다(25절).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모세의 가정은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즉 할례는 모세의 가정의 개인적 구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서 대표적인 구원의 의미도 할례가 가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게르솜은 모세의 맏아들이면서, 또 신부된 모세 가정의 신랑이기도 하다. 그리고 십보라도 개인적으로 모세의 아내이지만 신부된 모세 가정의 대표로서 아내이기도 하다. 사실 여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 맏아들은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십보라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나아가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랑-신부 관계가 모세의 가정에서도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 가정을 구원할 신랑은 게르솜이요 모세를 포함한 가족이 신부로서 십보라가 대변하고 있는 점이다. 즉 개인적으로는 모세와 십보라가 부부이지만, 할례가 지니는 대속적 의미 때문에 게르솜과 십보라가 상징적 부부이다. 여기서 모세는 그 가정의 가족의 한 지체로 묻히고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십보라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아내이면서, 할례의 공적 혼인 차원에서는 모세 가족을 대표하는 신부로 부각되고 있다.

부부관계를 계시역사 진전을 따라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의 가정에서는 모세의 맏아들이 신랑이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신부이며, 옛 언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이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이다. 여기서 모세의 가정에서 아버지된 모세와 아들인 게르솜이 그 가정의 구속자(redeemer)로서 혼용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의아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나오미의 친족중에서 기업무를자(kinsman-redeemer)는 분명히 보아스이다. 그러나 보아스(아버지)가 룯과 동침하여 얻은 오벳(아들)을 나오미의 기업무를자라고 말한다(룯 4: 14, 15).

사실로 십보라가 게르솜을 보고 자기 맏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피의 신랑”이라고 한 이유는 할례를 인함이라고 본문이 말함으로(26절), 또 할례는 한 번 실시하고서도 할례라는 말은 복수로 표기한 것을 보면, 할례의 의미에 일반적으로 혼인적 요소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이 할례가 그저 모세 가정을 구하는 단순한 차원도 있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혼인의 의미를 가진 할례 사건임을 시사하고, 나아가서 신랑의 역할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할례임을 복수로 표현하여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계시역사의 전진과 변혁에 따른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 본문은 암시하고 있다.

#### 5. 4 할례의 피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게르숨이 흘린 할례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가 된 것을 그 남편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마련한 피를 가리킨다. 할례의 피는 그 수치스런 아내를 그 남편되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래도 둘이 하나 되었다는 표적으로서 자기의 피를 마련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마련하신 것이 곧 할례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할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희생(Sacrifice), 화목제물(Propitiation), 구속(Redemption), 화목(Reconciliation) 등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지만(John Murray, *Redemption—Accomplished and Applied* 1955: 25-56) 우리 본문이 가르치는 점은 희생적 대속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지만 죄로 타락하여 음행한 신부로서 처녀의 표적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멸망 받아야 마땅한 우리(아내=교회)를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의 처녀 표적을 마련하여 주신 일면이 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교회)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도록 해 주시었다. 주님의 피가 지니는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이런 특수한 면을 할례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남자 아이의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기 “아비 집에서 창녀짓을 하여”(신 22:21)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늘 기억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할례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 신랑되신 예수님이 대신 피를 마련하여 구원해 주어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할례의 피가 지니는 혼인과 관련하여 대속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게르숨의 양피에서 흐르는 할례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새 이스라엘(교회)을 대속하였다.

## 6. 마감하는 말

### 6. 1 신랑(주님) 위주의 본문 기록

우리는 매우 난해한 본문을 다루었다. 특히 성경 전체의 계시사적인 틀 안에서 이 본문이 모세보다도 그 만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해석하였다. 이 점이 이 글의 방법론상 약점이자 강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본문의 번역이 모호한 점에서 출발한 것이 약점이고, 그 약점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시도한 것이 강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제시할 시점에 왔다. 즉 우리 본문의 “그”라는 3인칭 단수 대명사의 선행사는 모세보다는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할례로 인하여 십보라는 자기의 만아들이 자기를 위한 피의 신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피의 신랑 게르숨의 할례의 피는 그 신부인 모세의 가정이 처녀의 표적을 보이지 못한 것을 신랑이 대신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 6. 2 신부(교회) 위주의 본문 기록

우리 본문에서 모세는 거의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아내 십보라가 아들 다음으로 중요 인물로 등장하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십보라는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25절). 모세의 아들의 양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는 모세보다 그 아내 십보라가 더 적격이기 때문인 듯하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는 여자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어머니로서 하와를 더욱 잘 드러내기에는 모세보다는 십보라가 더 적격이기 때문인 듯하다. 즉 상징적인 차원에서 처녀의 표적이 필요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이스라엘,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를 나타내는데는 모세보다 십보라가 더 자연스럽게 연계되기 때문이란 말이다.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사건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본문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모세라고 지레 짐작한 면이 있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더하는 것 같다.

### 6. 3 예비적 유월절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까지

본문에서 게르숨의 할례의 피는 모세의 가정을 구하였다. 여기서 게르숨은 “피의 신랑”이 되었다. 이와같이 본문에서 모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모세 가정 식구에게 개인적 의미와 구원사적인 의미가 이중으로 중첩된 계시 사건이었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할례는 혼인관계를 나타내고 사내아이는 신랑을 예표하고, 그 피는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신랑이 대신 흘리는 대속의 피를 가리킨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가정의 할례는 유월절—출애굽을 내다보는 예비적 유월절이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가 부활 및 오순절 성령강림을 포함한 골고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내다 보는 예비적 구속 사건인 점과 비슷하다.

우리는 음행한 신부로서 신혼 첫날에 피흘려 처녀 표적을 마련하지 못하고 영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신랑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대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결혼식을 기념하고,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즐기며,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내다보는 영광스런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할례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비적 유월절로서 출애굽, 예수님의 세례, 골고다 십자가 사건, 성례식, 어린양의 혼인잔치 등 모든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prefigure) 것이다.